

제15권 13호

2025. 7. 7~2025. 7. 20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트럼프 관세 전쟁의 끝은?

이슈분석

하반기 경제 전망: 대내외 정책 파급효과에 초점

금융경영브리프

SMFG · SBIHD, 디지털 부유층 공략을 위한 JV 설립
AI 에이전트 결제의 시대, 글로벌 카드사의 전략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KDI 선임연구위원	송영관
------------	-----

이슈분석

연구위원	정유탍(jungyt)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송형온(hesong)
연구원	서유나(yuna.seo)

금융지표

연구원	서유나(yuna.seo)
-----	---------------

제15권 13호

2025. 7. 7~2025. 7. 20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트럼프 관세 전쟁의 끝은?
- 06 **이슈분석** 하반기 경제 전망: 대내외 정책 파급효과에 초점
- 10 **금융경영브리프** SMFG · SBIHD, 디지털 부유층 공략을 위한 JV 설립
AI 에이전트 결제의 시대, 글로벌 카드사의 전략
- 14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트럼프 관세 전쟁의 끝은?*

송 영 관 KDI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전면적인 관세 전쟁으로 막을 올렸다. 이런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미국의 대외 경제 전략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 전반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개시한 주된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과연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칠 구조적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는 제2기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그는 29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국경 보호, 에너지 안보, 그리고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을 천명하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본고는 그의 발언을 바탕으로 트럼프 관세 전쟁의 목적을 정리하고, 해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나아가 이러한 보호무역 전략이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칠 구조적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트럼프 관세 전쟁의 목적

트럼프는 제2기 취임 연설에서 제25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언급하며, 그가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맥킨리는 1890년 하원의원 시절 ‘맥킨리 관세법(McKinley Tariff Act)’을 주도하여 평균 5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도입하였고,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1897년에는 ‘딩글리 관세법(Dingley Tariff Act)’을 통해 평균 관세율을 약 57%까지 인상하는 등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맥킨리의 정책 기조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으며, 관세를 미국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세를 제조업 일자리 회복, 무역수지 개선, 그리고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강조하며, 관세 전쟁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주요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목적은 제조업 부흥, 무역적자 감소, 재정 확보, 중국견제 등 다양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첫째, 제조업 부흥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제조업 일자리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FDI 유치 뿐 아니라 해외로 이전한 공장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관세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의 중심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적자 감소와 재정 확보다. 트럼프는 집권 기간과 재선 캠페인 내내 미국의 무역적자를 비판하며, 이를 해소할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내세웠다. 그는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약탈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상호 관세를 통해 공정한 무역과 대등한 거래 조건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세 폐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기 취임 연설에서는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셋째,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관세 활용이다. 트럼프는 2기 선거 기간 동안 관세를 무역뿐 아니라 이민 억제, 중국 견제, 외교적 압박 등 다목적 전략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약 반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관세를 중국 견제와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 미국의 외교 전략 전반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와 함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전쟁은 성공할 것인가?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관세전쟁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시각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관세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으로 평가한다. 관세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비용 상승과 공급망 교란,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제조업 고용 확대와 중산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MF·OECD 등 국제기구 또한 관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교역 축소, 경기 둔화, 투자 불확실성 심화를 경고한다. 경제사적 선례 역시 비관적이다. 1930년대 대공황기 보호무역 확대가 글로벌 교역 급감을 통해 위기를 증폭시킨 사례처럼, 트럼프 관세도 보복 관세 확산,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유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관세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 전략은 경제적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무역적자 축소나 재정 확충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오히려 다수의 분석은 해당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관세는 단기적으로 수입을 억제해 무역수지 개선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보복 관세, 수출 둔화, 공급망 교란, 해외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2024년 기준 연방 지출이 GDP의 24%에 이르고, 관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세만으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관세 수입이 일정 부분 재정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 증가는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트럼프식 ‘상호관세’가 미국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실질적 세금 인상 효과를 유발해 거시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 또한 경제적 효용이 낮을 뿐 아니라 법적·외교적 비용을 키운다는 비판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마약 등을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무역 규범 훼손과 행정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연방국제무역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국 견제 효과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 양국의 고율 관세 주고받기는 보복 관세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년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관세를 115%씩 크게 낮추고 90일간 관세 유예 및 일부 비관세 조치 철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해 미국 자동차·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겪어 긴급 협상에 나서야 했다. 양국은 희토류 공급 재개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으나, 수출 통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서의 관세는 보복 관세를 불러 무역전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행정·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실질적 경제·외교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제조업체, 소매업체, 수입 의존 산업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 약화, 재고 누적,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높은 물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패배 요인으로 지적된 상황에서,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와의 전략적 거리두기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다.

역사적 사례는 관세 정책의 정치·경제적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평균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1890년 「맥킨리 관세법(McKinley Tariff Act)」은 수입품 가격과 물가 상승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유럽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대중의 불만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공화당은 1890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했고, 맥킨리 본인도 하원의원직을 잃었다. 이후 대통령 재임 후반기, 맥킨리는 자국 산업 성장의 한계와 보호무역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점차 상호주의와 자유무역 기조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는 상대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입법을 지지했으며, 1901년 암살 직전까지도 상호 관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례는 고율 관세가 단기적으로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반발과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도전과 재편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제
질서의 다극화를
초래할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질서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냉전기 미소 대립과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 주도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세계경제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와 이에 대한 각국의 보복관세는 이러한 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상황이 확산될 경우, 1930년대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회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역사적 사례는 이러한 우려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해 평균 59%의 고율 관세를 도입했고,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미국산 제품에 30~50%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관세 경쟁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세계 무역량을 약 66% 감소시키며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자유무역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미국과 영국 등 23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서명하고, 다자간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GATT 체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전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고, 개발도상국의 점진적인 자유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이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결국 세계 경제질서의 다극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가 미국, 유럽과 아시아 협력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반서방 협력체 등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전략적 자립을 내세워 무역장벽을 강화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간 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통상질서는 이해 충돌과 협력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90.93%에 이르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중견 무역국들은 재편되는 세계 통상질서에 따라 양자·다자 통상 전략의 병행 추진,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물자 확보 체계 다변화 등 종합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자유무역의 가치와 현실적 이해가 충돌하는 시대에, 보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통상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은 통상 전략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물자 확보 등
종합적 전략이 필요

하반기 경제 전망: 대내외 정책 파급효과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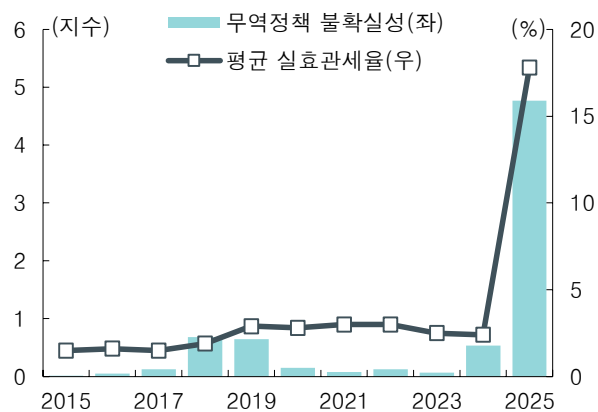
정 유 탁 연구위원

상반기 국내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정책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내·외수가 동반 부진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반기에는 신정부 출범 이후의 정정불안 해소 및 정책 모멘텀 강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 재개가 예상된다. 다만, 美 관세 인상 영향으로 수출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대내 구조적인 불안요인들도 남아 있어 회복 탄력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상반기 국내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저조한 성장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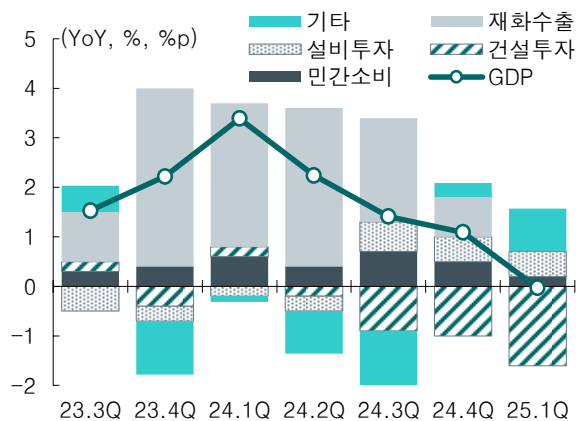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무역정책과 교역 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 미국 신정부는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기본관세 10%+특별관세), 품목별(자동차·철강) 관세 등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관세 부과
- 국내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 현지화 진전(미국 자동차 공장 가동 확대),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부진
 - 수출단가는 석유화학·제품(국제유가 하락, 경쟁 심화 등에 기인)을 중심으로 하락
- 대내적으로도 정치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심리 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도 맞물리면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 기록
 - 특히, 1분기에는 역대급 산불 발생, 일부 건설현장 사고 및 공사 중단 등 일시적 요인들도 가세하면서 역성장(통상적으로 1분기 성장률이 연간 성장률에 큰 영향)

■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및 실효 관세율



자료 : Bloomberg, Budget Lab

■ 한국 GDP 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관세 시차효과, 정책 불확실성 등 감안 시 성장세 약화 불가피

-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의 재정확대 및 통화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관세 충격의 현실화, 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점차 증대
 - 선진국·신흥국 모두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양호한 가계·기업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 등으로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관세 인상 등에 따른 소비 모멘텀 약화(물가 불안, 고용 부진 등) 속에 성장 둔화
 - 美 대규모 감세정책은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위험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재정건전성 악화 및 금리 상승 등 부작용 초래 우려
- (중국) 미국 관세 타격, 내수 부진 및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밀어내기 수출 등을 통한 성장 방어 노력 지속

■ 하반기 국내 경제의 회복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회복 탄력성은 크지 않을 우려

- 국내 경제는 신정부 출범 이후의 정정불안 해소 및 경제심리 회복 속에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 개선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차 추경(분석 대상 12.2조원)의 금년 성장률 제고효과는 0.13~0.14%p이며, 2차 추경(지출조정 제외 14.9조원)의 성장률 효과는 0.14~0.32%p
- 그러나 잠재성장률 둔화, 가계부채 누증, 소비성향 하락 등 구조적인 불안요인들을 고려할 때 내수 회복력은 완만한 수준에 그칠 우려(과거 평균 하회)
 - 과거 10년간('15년~'24년) 내수(민간소비+고정투자)의 평균 증가율은 2.2%
- 또한, 국내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수출('24년 GDP대비 총수출 비중은 39.5%)의 경우에도 순환적·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

■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

국가	'24년	'25.1H	'25.2H	'25년
미국	2.8	1.9	1.0	1.4
유로존	0.9	1.3	0.7	0.9
일본	0.2	1.3	0.4	0.8
중국	5.0	5.1	4.2	4.5
인도	6.5	6.9	6.3	6.6
인니	5.0	4.9	4.7	4.8
브라질	3.4	2.6	1.5	2.1

주 : 해외 IB들의 평균이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기준
자료 : Bloomberg(6.17일 기준)

■ 한국 '25년 1·2차 추경의 주요 내용

구분	총 규모	주요 내용	세부 규모
1차 (4월)	13.8조원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지원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3.3조원 4.5조원 5.1조원 1.0조원
2차 (6월)	30.5조원 (세입경정 10.3조원)	경기 진작 (소비여력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소상공인 제기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물가안정) (지방재정 보강 등)	15.2조원 (11.3조원) (2.7조원) (1.2조원) 5.0조원 (1.4조원) (1.6조원) (0.7조원) (1.3조원)

주 : 1차 추경은 국회 확정 기준, 2차 추경(안)은 국회 제출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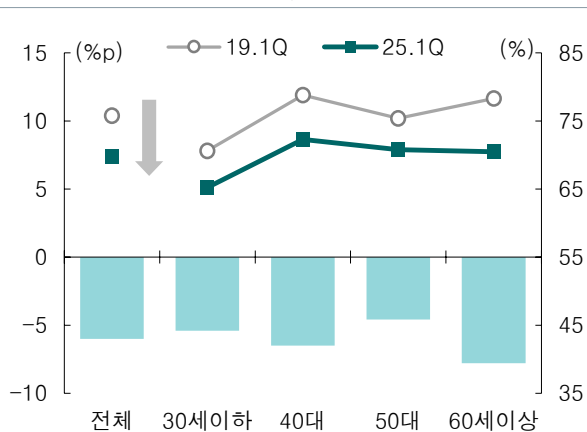
■ 내수는 정치적 리스크 해소 및 정책 모멘텀 강화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을 기대

- (민간소비) 신정부 출범 이후의 심리 개선 및 소비 진작책 시행(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리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세 재개
 - 단, 가계소득 불안과 연체율 상승 속에 구조적 취약성(소비성향 하락 등)은 제약요인
- (건설투자) 그동안 누적된 착공 부진 영향, 주택 미분양 증가, 건설사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감소세는 지속되나, 일부 선행지표 개선과 정부지원으로 감소폭 완화
- (설비투자) 금융여건 완화(금리↓, 환율↓) 및 고성능 반도체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 수출 악화, 주력 비IT 산업 부진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 (물가) 유가·환율 하락 속에 정책적 요인(유류세 인하 연장, 관세할당 등)을 감안할 때 안정화 기조는 이어지겠으나, 가공식품 상승 여파 및 기상 여건 등은 불안요인
 - 유가는 OPEC+ 증산 기조,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향세 유효

■ 수출은 미국발 관세 인상의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둔화 흐름 확대

- 선수요 소멸(관세 부과 전), 관세 전가의 시차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관세 인상의 파급효과가 점차 증대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및 국내 수출 위축
- 미국의 對韓 관세 인상에 따른 직접적 對美 수출 감소뿐 아니라 우회수출 차단,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간접효과도 우려되는 가운데 국가별·품목별 차별화 주목
 - 對美 부가가치 수출 상위 경유국(멕시코·중국·베트남, KIET)에 대한 美 규제 강화
- 한편,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유가 하락과 중간재 수요 감소), 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흑자 기조를 지속

■ 한국의 가계 평균소비성향



주 : 막대그래프(좌축)는 25.1Q와 19.1Q의 격차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연구소

■ 한국의 주요 국가별·품목별 수출 증가율(%) 추이

국가	25.1Q	4~5월	품목	25.1Q	4~5월
전체	+2.4	+0.1	반도체	+10.9	+18.1
중국	-2.4	-3.5	석유제품	-11.9	-17.8
미국	+2.5	-8.4	자동차	+3.3	-5.1
아세안	+11.3	+0.4	일반기계	-8.3	-6.8
EU	+1.3	+9.9	철강	-2.4	-4.7
중남미	-6.4	-4.9	선박	+18.6	+8.9

주 : 일평균 수출액의 증가율(YoY), 석유제품에는 석유화학 포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하나금융연구소

■ 금융시장은 통화완화 및 달러화 약세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며 금리 하락과 원화 강세

- (기준금리) 경기부양 목적의 정책 조합 차원에서 인하 기조가 이어지겠으나, 금융안정 리스크(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우려)로 추가 1회 인하에 그칠 듯
- (시중금리) 기준금리 인하 폭 축소 우려, 대규모 2차 추경 추진, WGBI 편입 연기(25.11월→26.4월) 등 정책·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낙폭은 제한적
 - 2차 추경으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약화되고, 국채 순발행 물량은 확대
- (원/달러 환율) 달러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경기 부진 완화, 외국인 자금유입 기대, 무역협상 과정에서의 亞 통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하락세 지속
 - 달러화는 美 경기둔화 및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정책 신뢰 약화(과거와 달리 금년 들어 美 정책불확실성 확대가 달러화 약세 초래) 등 감안 시 하락 흐름 유효

■ 경제 전망 관련 美 경제정책 및 파급효과, 지정학 위험,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 등 중요

- 미국의 국가별 관세 수준과 함께 품목별 관세 확대 및 비관세 부문 압박 가능성, 상대국의 보복 여부, 관세 인상 시 실제 파급효과 등에 주목
 - 美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대내정책(재정·통화정책)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 소지
- 이스라엘-이란 휴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충돌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 과정, 가자지구 전쟁 향방 등 중동 리스크에도 초점
 - 최근 격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의 개입 여부(방식)도 주시
- 국내 경기부양책 시행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조적 취약성 속에 민간 부문의 활력이 저하되어 있어, 민간 경제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회복 여부에 주목할 필요 

■ '25년 하반기 경제·금융시장 전망표

	2024년			2025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8	1.2	2.0	0.2	1.8	1.0
민간소비(%)	0.9	1.2	1.1	0.7	2.0	1.3
건설투자(%)	0.0	-6.3	-3.3	-12.0	-0.8	-6.4
설비투자(%)	-2.4	5.9	1.7	5.3	-0.5	2.3
경상수지(억달러)	402	589	990	440	465	905
통관수출(%)	9.1	7.2	8.1	-0.0	-4.1	-2.1
통관수입(%)	-6.4	3.4	-1.7	-1.6	-3.6	-2.6
소비자물가(%)	2.8	1.8	2.3	2.1	1.9	2.0
국고3년 금리(%)	3.34	2.88	3.11	2.49	2.40	2.45
원/달러 환율(원)	1,350	1,379	1,364	1,425	1,345	1,385

주 :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모든 지표(경상수지 제외)는 해당 기간의 분기 평균 기준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SMFG·SBIHD, 디지털 부유층 공약을 위한 JV 설립

송형은 연구원

SMFG와 SBI홀딩스는 일본 내 디지털 부유층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디지털 기반의 차별화된 결제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즈호그룹, MUFG 등도 디지털 부유층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합작투자나 인수로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도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부유층의 특성과 니즈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자산관리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

■ SMFG와 SBI홀딩스는 일본 내 부유층 손님을 위한 자산관리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1]

- SMFG와 SBI홀딩스는 자산관리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5.7월까지 예비회사를 설립하고 '26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
 - '20년 SMFG가 SBI홀딩스의 SBI증권 지분 인수를 시작으로 자산관리, 카드, 증권,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제휴, 공동 투자, JV 설립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
- 이번 합작법인은 모바일 금융의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본 디지털 부유층을 공략하여 시장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목표
- 합작법인은 기존 SMBC의 그룹 통합 앱인 Olive를 기반으로 최고 레벨인 Olive Infinite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결제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손님이 AI채팅, 전화, 비디오 통화 등 비대면 자문과 함께 Olive 라운지에서 대면 상담도 함께 제공되는 새로운 자문서비스인 Flexible Consulting을 서비스할 예정

■ 일본 부유층 자산관리 시장은 부유층 확대와 보유자산 증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음

- Daiwa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부유층 자산관리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산의 운용컨설팅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일본 가계 금융자산 규모는 '24년 717조엔에서 '35년 953조엔(CAGR 33%)까지 확대 전망^[2]
- 노무라 종합 연구소(NRI)에 따르면 순자산 5억엔 이상의 초고액자산가가 보유한 총 순금융자산이 '23년 469조엔으로 '21년 대비 28.8% 증가
 - 초고액자산 보유가구 수는 '23년 기준 165만 3천 가구로 '21년 대비 11.3% 증가

[1] “三井住友とSBIが新会社で資産運用サービスを提供”, Kanzai, 2025.6.

[2] “日本のウェルスマネジメント市場のポテンシャルを探る”, 大和総研, 20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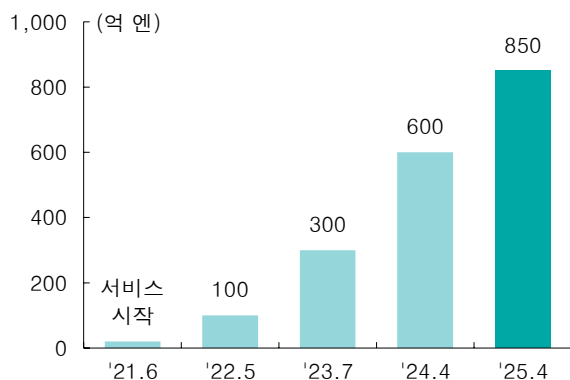
■ 일본 금융사들은 제휴 강화 및 인수를 통해 부유층 대상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

- '24.4월 미즈호 증권은 라쿠텐 증권과 자산관리 합작 법인인 미라이웰스파트너즈를 설립하여 디지털 친화적인 부유층 손님 확보에 주력³⁾
 - 온라인 상담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손님 중 60대 이상 비중도 높은 편
- '24.11월 MUFG는 일본 내 최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웰스내비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약 997억엔 투자)시켜 디지털 자산 운용 서비스 역량을 강화
 - MUFG는 '26년까지 머니 어드바이저리 플랫폼(Money Advisory Platform, MAP) 사업을 출범할 예정이며 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자산운용, 주택담보대출, 보험 등 가계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 이처럼 일본 주요 금융사들은 디지털 및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며 부유층 손님의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려는 움직임

■ 국내 금융사들도 자산관리 시장 변화에 대응한 상품·서비스 혁신 및 차별화 필요

- 국내에도 모바일 금융 확산과 비대면 채널 활성화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부유층 손님군이 부상하고 있어,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디지털 부유층은 기존 부유층과는 다른 금융 행동 특성과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특성 분석 및 니즈 파악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국내 금융회사들은 손님 중심의 통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MUFG-SBI 그룹의 제휴 이후 카드 적립 금액



자료 : SMBC

■ Olive의 등급에 따른 자산 운용 서비스

	클래식	골드	플래티넘	인피니트
컨설팅 서비스				개인 전문가 선택가능한 자문전문가
디지털 서비스	채팅 상담 자산 시각화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최대 2.5% (통상 ~0.5%)	최대 3% (통상 ~1%)	최대 5% (통상 ~3%)	최대 6% (통상 ~4%)

주: 카드포인트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
자료 : SMBC

[3] "Mizuho and Rakuten's advisory venture targets \$360 million in assets by 2029", Reuters, 2025.4

AI 에이전트 결제의 시대, 글로벌 카드사의 전략

서 유 나 연구원

최근 Visa는 결제 네트워크 개방으로 AI가 스스로 상품 탐색부터 결제까지 수행하는 ‘Intelligent Commerce’를 공개하며 상거래 주도권이 AI로 전환되는 새로운 상거래 시대를 제시했다. Mastercard, Paypal 등 글로벌 결제 기업들도 최적 결제 수단 선택, 가맹점·소비자의 양방향 네트워크 지원 등 AI 에이전트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도 미래 결제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Visa는 결제망 개방으로 AI가 상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상거래 시대 개막을 선언^[1]

- '25.4월 Visa는 연례행사에서 ‘Visa Intelligent Commerce’를 공개하며 자사의 결제 네트워크를 AI 에이전트 개발자에게 개방한다고 발표
 - 상품 추천에 머물던 AI 에이전트는 Visa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대신 상품 탐색 및 선택, 결제를 진행
- Anthropic, IBM, Microsoft, 삼성 등 AI 업계 내 글로벌 선도 기업과 협력해 안전한 AI 기반 커머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 AI 에이전트가 결제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면 검색, 비교, 선택, 결제에 이르는 구매 활동을 AI에 맡기는 새로운 커머스 시대가 펼쳐질 전망

■ Visa Intelligence Commerce의 주요 특징은 에이전트 카드, 개인화, 간편·안전 결제 등임

- (AI-Ready Card) AI 에이전트에게 해당 에이전트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카드(고객 카드 정보를 토큰화된 데이터로 변환)를 부여해 보안을 강화
 - 소비자는 일련의 과정을 대신 수행할 AI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결제 활성화 시점 및 조건을 직접 설정하면, 에이전트는 이에 맞춰 대리 결제를 수행
- (AI 기반 개인화) 고객 동의하에 결제 및 구매 데이터를 공유해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더욱 개인화된 쇼핑 추천을 제공
- (간편·안전 결제) AI 에이전트의 지출 한도 등을 손쉽게 설정 가능하며, 거래 내역은 Visa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결제 통제 및 분쟁 관리가 가능
 - 기존 Visa의 사기 탐지 시스템 또한 동일하게 적용

[1] “Find and Buy with AI: Visa unveils new era of commerce”, Businesswire, 2025.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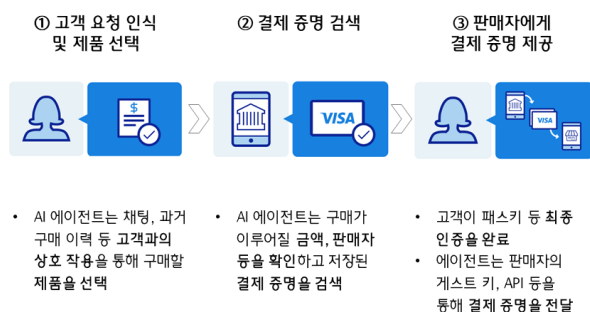
■ Mastercard, Paypal 등 글로벌 결제 기업들도 AI 에이전트 적용을 준비

- Mastercard는 사전 설정된 조건에 따라 최적의 결제 수단(카드)을 선택하고
악의적인 AI 에이전트 판별이 가능한 결제 인프라 ‘Agent Pay’를 제공
 - 해외 공급업체와의 거래 시 Mastercard가 발급한 가상 법인카드 토큰을 통해 국경간
결제가 가능해지는 등 향후 IBM 등과 협력해 B2B 활용을 확대할 예정
- Paypal은 AI 에이전트 환경 내에서 결제, 배송 추적, 고객 지원까지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발자 도구 ‘Agent Toolkit’을 출시
 - ‘Paypal 지갑’ 기능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고도 결제,
배송 및 청구 정보를 처리 가능한 가맹점과 소비자 양방향 네트워크가 특징
- Stripe, Skyfire 등 핀테크 기업들도 일회성 가상 카드번호 생성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거래를 수행하게 하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

■ 국내 금융사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에이전트 결제 네트워크 도입을 고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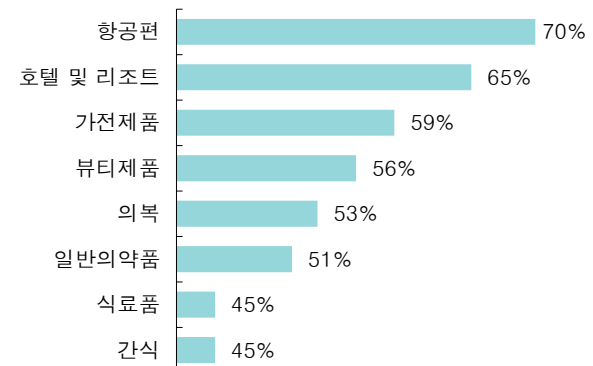
- AI가 결제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상거래 주도권이 소비자에서 AI로 점차
이동하는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
 - AI 에이전트가 '30년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의 25%(약 9조 달러)를 창출할 전망^[2]
- 국내 카드사 및 핀테크들도 결제 경험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AI
에이전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
 - 다만 보안 등의 문제로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3]하므로 Visa, Mastercard와 같이
AI 에이전트 결제에 대한 최종 통제권은 고객이 갖는 구조로 우선 접근 

■ Visa의 AI 에이전트 작동 방식



자료 : Visa, 하나금융연구소

■ 온라인 쇼핑 내 소비자의 AI 에이전트 활용 의향



자료 :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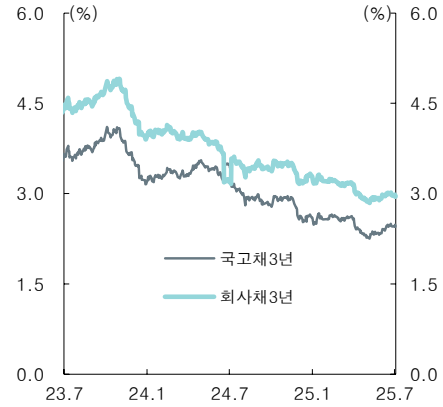
[2] “AI Agents have clear mission, hazy business model”, Reuters, 2025.2.20

[3] “Are American consumers ready to let AI agents shop and pat on their behalf?” The Financial Brand, 2025.6.20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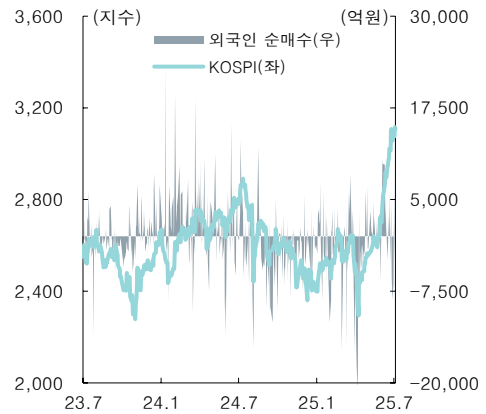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5월말	2.58	2.59	2.49	2.92	2.35	2.52
6월 27일	2.47	2.57	2.52	2.97	2.45	2.59
6월 30일	2.57	2.56	2.52	2.96	2.45	2.59
7월 1일	2.50	2.54	2.51	2.96	2.45	2.58
7월 2일	2.48	2.51	2.51	2.98	2.48	2.62
7월 3일	2.50	2.51	2.49	2.95	2.45	2.60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5월말	2,697.7	148,036	526	-6,118
6월 27일	3,055.9	139,703	382	-8,579
6월 30일	3,071.7	133,338	464	-6,513
7월 1일	3,089.7	151,848	576	1,765
7월 2일	3,075.1	148,299	697	-3,273
7월 3일	3,116.3	148,832	539	6,456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5월말	1,380.1	957.5	191.7	1,565.8
6월 27일	1,357.4	938.2	189.2	1,589.8
6월 30일	1,350.0	937.1	188.4	1,591.2
7월 1일	1,355.9	945.0	189.2	1,600.8
7월 2일	1,358.7	945.4	189.6	1,602.5
7월 3일	1,359.4	937.9	189.6	1,5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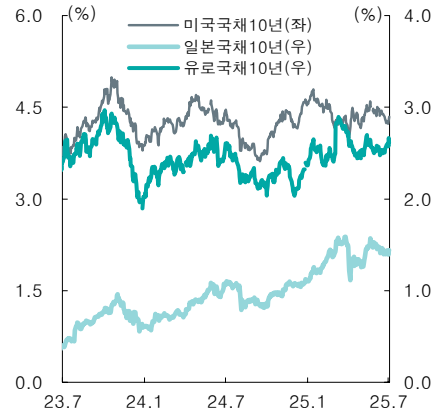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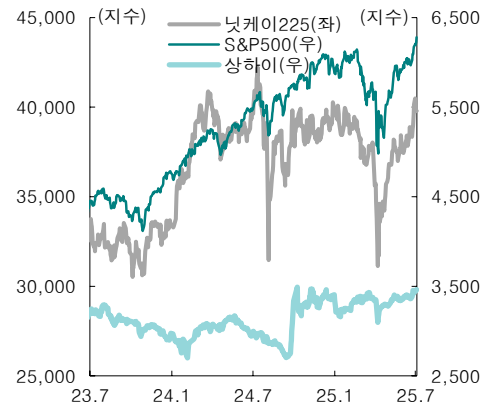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5월말	4.33	4.35	3.90	4.40	1.50	2.50
6월 27일	4.33	4.34	3.75	4.28	1.44	2.59
6월 30일	4.33	4.34	3.72	4.23	1.43	2.61
7월 1일	4.33	4.34	3.77	4.24	1.39	2.57
7월 2일	4.33	4.34	3.78	4.28	1.43	2.66
7월 3일	-	4.34	3.88	4.35	1.44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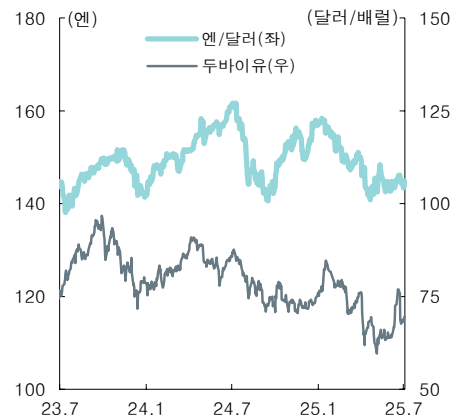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5월말	5,911.7	37,965.1	3,347.5	5,366.6
6월 27일	6,173.1	40,150.8	3,424.2	5,325.6
6월 30일	6,205.0	40,487.4	3,444.4	5,303.2
7월 1일	6,198.0	39,986.3	3,457.7	5,282.4
7월 2일	6,227.4	39,762.5	3,454.8	5,318.7
7월 3일	6,279.4	39,785.9	3,461.2	5,343.2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5월말	143.98	1.135	63.8	3,315.4
6월 27일	144.60	1.171	68.46	3,287.6
6월 30일	144.02	1.179	68.75	3,307.7
7월 1일	143.37	1.181	68.16	3,349.8
7월 2일	143.63	1.179	68.59	3,359.7
7월 3일	144.92	1.176	69.62	3,340.6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7월 4일 인쇄

2025년 7월 7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